

●●● 이언중 종계부화분과위원장

데이터베이스, 쿼터제를 통한 업계안정화에 노력



▲ 이언중

- 87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43기 수료
- 94 대한양계협회 서산육계분회장
- 95 서산시 체육회 부회장
- 98 종계부화산업발전협의회장
- 99 대한양계협회 부화분과위원장, 부회장
신영종계장 대표(현재)

보고는 본회 제17대 임원구성과 함께 앞으로 3년간 본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를 이끌어갈 이언중 위원장(본회 부회장)을 만나 향후 종계부화산업의 당면현황과 분과위원회 운영방안을 들어보았다. 이언중 부회장은 지난 1999년 이후 7년간 종계부화분과위원장직을 역임해 오면서 종계부화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이에 앞서 1998년에는 종계부화산업발전협의회를 태동, 산파의 역할을 맡아 자체적인 기금을 마련, 종계 도태사업 등 업계를 위해 다양한 수급조절 사업을 전개해 온 바 있다. 1999년 분과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이원화되어 있는 모임을 동회에 합류시켜 단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PS친목회, 청초회, 종계관련협의회 등 관련 조직과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업계의 단합을 꾀해가고 있다.

최근 종계산업 현황은?

지난 몇 년동안 우리 종계업계는 한 순간도 마음을 놓고 생산에 전념할 수 없을 정도로 혼미한 순간들을 거듭해 왔습니다. 병아리의 생산과잉으로 병아리를 렌더링시키거나, 종계도태 사업이

이루어져 왔고 와중에 2003년 말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양계산업 자체의 존폐에 놓였던 것을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정부를 비롯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2개월만에 다시 소비가 늘어 기사화 생은 했지만 그때 받은 영향이 지금까지 우리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생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정부의 강력한 의지하에 지난 5월 1일부터 종계부화장방역관리요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직접적인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시행령이 법을 잘 지키는 종계인들을 범법자로 만들지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이 주변여건상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 많은 희생을 치루고 나서야 공통분모를 찾아나갈 것으로 봅니다.

이와관련하여 최근 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 대표자와 계육협회 대표자간의 대화를 통해 산란계 CC와 육용종계로부터 나온 병아리(일명 백세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종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도출하여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백세미 문제는 1997년 종계업계에서 처음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한 이후 지난 2003년에도 업계 관련인들이 모여 삼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산란 실용계 농장의 방역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나 백세미가 수출산업 품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형평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 방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종계에 대한 가금티푸스 백신 접종 문제 등 아직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정부에서도 백세미 관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의있는 책임관리 시스템을 찾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안정된 산업유지를 위한 노력은?

지난 4월 대한양계협회에서 데이터베이스(D/B) 주관단체로 지정받으면서 보다 체계적인 D/B구축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제도가 안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보다 긍정적인 객관성을 찾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리라 봅니다. 양계전반적인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해 정부에서는 보다 많은 예산을 책정하여 적극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쿼터제에 대해 원종농장들의 협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쿼터제 이후 아직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르지만 소규모 종계업자들이 제한된 종계생산으로 입식이 용의하지 못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 규모가 큰 농장일수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임승차 없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재 신임을 받아 분과위원장을직을 다시 맡게 되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종계부화분야 및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소비확대를 통한 업계발전 방안은?

지난해 닭고기 1인당 소비량은 6.7kg으로 2003년도 7.9kg에 비해 18.5%나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에 의한 소비둔화도 영향을 주었지만 이런 추세로 소비가 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돼지고기는 지난해부터 자조금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안심과 등심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로 인해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홍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의무 자조금제도가 하루속히 정착되어 소비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 김동진 홍보팀장)